

유가 상승·운임 하락 ‘이중고’… 해운업계 실적 ‘빨간불’

현대상선, 실적 12분기 연속 적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
노선 확대 등으로 수익개선 기대

국내 해운업계의 실적부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해운업체 11개 선사의 매출총액은 지난해보다 16% 감소한 2조7560억원에 머물렀고 영업이익 합계는 지난해 374억원에서 올해 -513억원으로 적자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상선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영업적자 17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9.6% 커졌다. 12분기 연속 적자다. 매출액은 1조1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1757억원으로 전년 동기 73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흥아해운 동방(해운부문) 역시 영업이익이 확대된 성적을 받았고 SK해운과 풀



국내 11개 선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지난해 374억원에서 올해 -513억원으로 적자전환하면서 국내 해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연합뉴스

라리스윙프·대한해운·대한상선·대림코퍼레이션(해운물류부문)·대우로지스틱스(해운부문)도 영업이익의 감소를 맞았다.

반면 외국계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 라인의 올해 1분기 해상운송 사업부문은 매출액 68억1000만달러(약 7조3800억원), 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이익(EBITD

A)는 4억9200만달러(약 5300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1년 전의 49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매출액은 37.6% 늘었다.

독일 해운사 하파크로이트는 올해 1분기 6610만달러(약 7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1분기 800만달러에서 726.2% 폭증했다. 이 선사는 범

아랍선사 UASC 인수와 물량 증가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업손실 확대가 1분기 연료유 평균단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19% 상승한 314달러를 기록하는 등 원가 상승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 선대들이 1년간 소모하는 연료유 양은 3억5000만 수준이다. 연료비가 1달러만 상승해도 3억5000만달러의 원가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 가격은 지난달 18일 기준 t당 456.5달러(싱가포르항 기준)로, 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유가는 오르는데 운임은 하락하면서 해운업계의 답답함은 커졌다. 현대상선도 1분기 영업손실 확대 배경에 대해 운임 약세와 연료유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통상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다. 선박 공급 증가 및 운임 약세, 연료유 가격상승 등이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4일 총 3조원대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의 건조

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맡겨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해운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현대상선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0년까지 2만3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확보해 아시아~북유럽 노선에 투입하고, 1만4000TEU급 8척을 미주 동안 노선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만3000TEU급 7척과 5척을 각각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1만4000TEU급 8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하기로 했다. 2만3000TEU급 선박은 2020년 2분기, 1만4000TEU급 선박은 2021년 2분기에 각각 인도할 계획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2분기부터 계절적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운임 및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화주 확대 및 부산항 HPNT 터미널 운영권 확보로 인한 항만효율인하에 따른 수익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SK 경영진, 美서 미래 핵심인재 발굴 나서

2018 SK 글로벌 포럼 개최

SK 최고경영진들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을 보탬 글로벌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SK는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와 첨단산업 분야의 최신 트렌드 파악 등을 위해 지난 7일과 9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 '2018 SK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포럼은 미국에서 에너지·화학,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바이오 등 SK의 핵심 성장동력 분야의 인재를 초청해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첨단기술과 글로벌 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과정에서 SK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석·박사급 인재를 물론, 미국 내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한인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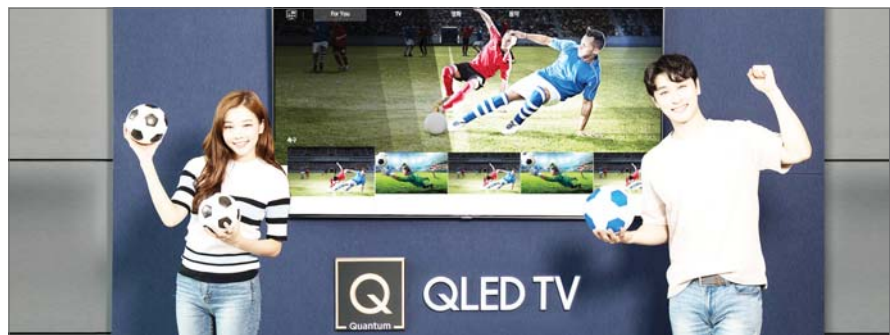
학자, 엔지니어, 사업개발담당 등 리더급 인재들이 초청 대상이다.

SK는 2012년부터 7년째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뉴(New) SK' 경영 전략을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다고 SK는 전했다.

또 이번 포럼에선 현지 인재들이 '자율주행' 등 본인 전공 분야의 연구 성과나 비즈니스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올해 포럼에는 SK 측에서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수펙스추진협의회 서진우 인재육성위원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지에서는 글로벌 기업, 연구소,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한인 과학자 등 34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삼성 QLED TV에 AI기반 축구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된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QLED TV의 축구 큐레이션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 QLED TV, AI가 축구 채널 추천

삼성전자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QLED TV를 포함해 2018년형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축구 관련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추천해 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사용자의 시청 이력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TV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유니버설 가이드' 안에 '축구(World Soccer)' 탭을 추가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월드 사커'는 축구 방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상파 외에도 TV에 연결된 ▲셋톱박스 ▲위성방송 ▲케이블 등 모든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한다. 거주 국가의 축구 대표팀 경기가 방영되고 있는 채널만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AI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다.

삼성 QLED TV 사용자들은 지능형 어시스턴트인 '빅스비'를 통해 "한국팀 스포츠 채널 찾아줘"와 같은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스포츠 경기 시청이 가능하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자동차 미래는 SW... 모비스 R&D 강화

14억 투입해 'SW 아카데미' 구축
연구원 400여 명 직무 교육 가능

현대모비스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기술을 견인할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한다.

현대모비스는 경기 용인 기술연구소에 총 14억원을 들여 4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소프트웨어 직무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모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회사가 이처럼 정보기술(IT) 기업에 버금가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따르면 자동차 한대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0%에서 2030년이면 3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운전의 주도권이 차로 넘어가면서 외부 해킹으로부터 차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



현대모비스 연구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도로환경을 반영한 인포테인먼트 제품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을 분석하고 있다.

고, 극한 환경에서도 한결같은 소프트웨어 성능이 보장돼야 한다. 세계적 자동차·IT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센서와 로직(인지·판단·제어) 등 자율주행에 특화된 융합 소프트웨어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빅데이터 활용, 영상 인식, 센서 제어를 비롯해 통신 기술 과정이 포함된다.

또 현대모비스 연구원들은 코딩이나 알고리즘 설계뿐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작동하는 원리를 비롯한 기계구조학도 배우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 관련 R&D 인력도 대폭 충원한다. 현재 800여 명 수준인 국내 기술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설계 인원은 2025년까지 5배 이상인 약 4000명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통해 전 연구원들을 스스로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소프트웨어 설계인력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인도연구소와 베트남 분소를 소프트웨어 전문 글로벌 연구거점으로 확대·운영한다. 이들 연구소는 IT·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들이 풍부한 곳에 있다. 설립 11년째인 인도연구소는 멀티미디어 제품 소프트웨어 설계 업무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들 연구소를 통해 내년 말까지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인 '엠빌리' 20대를 전 세계에서 운영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실제 도로환경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T-中 DJI, 드론영상 관제 솔루션 '맞손'

SK텔레콤이 세계 1위 드론 제조사인 중국의 DJI와 손잡고 드론 촬영 영상을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저변 확대에 나선다.

1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자사 '라이브 캐스터' 기반의 고성능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인코더·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서버 소프트웨어 등 관련 솔루션을 DJI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DJI 제품으로 촬영한 영상의 전송 지연율을 최소화해 고화질(HD)급 화질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은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의 통폐합을 통한 LTE 이동통신망 기반 고화질 영상 관제 솔루션은 스마

트폰의 카메라 및 통신 모듈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다양한 촬영장비에 스트리밍 인코더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화질의 영상을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 향후 DJI의 드론 및 촬영장비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사는 DJI 드론 조종 앱인 'DJI Go'와 SK텔레콤의 스트리밍 앱 '라이브 캐스터 스마트'의 기능 통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더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의 영상수신·관제 서버 솔루션인 'T 라이브 스튜디오'와 DJI의 드론 관제 솔루션 'DJI 플라이트 허브'의 기능을 통합 및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최낙훈 IoT사업지원그룹장(왼쪽)과 DJI 안 가스파릭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 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이번 협약으로 출시될 실시간 영상관제 솔루션은 ▲농업·물류·탐사 등에 활용되는 상업용 드론 영역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시설물 영상관제 영역 ▲방송중계·유튜브·페이스북 라이브 등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영역 등에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